

내선일체와 탈식민주의*

최윤수*

-
- | | |
|---------------------------|-----------------------|
| I. 문제제기: 탈식민주의 과제로서의 내선일체 | III. 내선일체 논리의 노예의식 |
| II. 내선일체 논리의 진보이데올로기 | IV. 내선일체 논리의 오인 誤認 체계 |
| | V. 맺음말 |
-

I. 문제제기: 탈식민주의 과제로서의 내선일체

식민성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근대성과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식민지는 근대세계의 확장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 그러한 세계질서는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근대적 상으로 구조화된 세계체제에서 근대성을 성취하도록 내몰리는 처지라면 식민성으로부터의 탈주는 여전히 힘겨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 과거에 대한 청산은 식민주의의 내적 논리를 규명하는 작업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식민지 과거에 대한 정치적·역사적 해석과 함께 철학적 해석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은 그것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고찰과 결합할 때, 현실적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하게 여겨지도록 조작된 식민주의의 논리는 지금도 사유의 밑바닥에서 동일한 식민주의적 권력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3-AM1002).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 동양철학 한국근현대사상 전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식민성은 태생적으로 근대의 탄생과 관련하므로 탈식민주의는 탈근대적 문제의식과 직접 관련한다.¹⁾

즉 식민성은 근대성의 근본적인 속성 중 하나이므로, 탈식민주의는 근대적 합리주의의 이분법적 구도를 부정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탈식민주의 담론은 여전히 팍스 아메리카리는 신식민적 세계 질서에 편입해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탈식민화의 저항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명칭과 그 개념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²⁾을 넘어 의미 있는 결과를 줄 것이다.

본 연구는 내선일체(內鮮一體)³⁾ 논리에서 식민주의의 전형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여 그것을 탈식민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

- 1) 본 연구는 현대의 세계를 근대의 틀로는 고찰할 수 없다는 탈중심주의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과 근대화의 완성으로는 근대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탈근대론의 문제의식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탈중심주의는 탈정치주의로 흐르고 그럼으로써 신자유주의와 친화성을 갖는 현실을 간과하게 만들 위험이 있는 반면에, 탈근대론은 노동착취, 여성차별, 환경파괴, 사회구조적 부정, 민주주의의 형해화 등과 같이 현실적인 문제들의 발생 원인을 근대화로 지목하여 극복하려는 기획이라는 점에서 좀 더 유효한 분석틀이라고 할 수 있다. 윤건차(저)/이지원(역), 『한일 근대사상의 교착』(문화과학사, 2003), 20-29 쪽
- 2) 이경원, 「탈식민주의의 계보와 정체성」, 고부웅(외),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문학과지성사, 2003), 30쪽. 현재 제3세계의 입장에서 보면 식민주의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반식민의 과제가 오히려 미완의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경원은 탈식민주의를 넓은 의미에서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 담론으로서, 그것은 어느 정도의 집단성, 지속성, 정치성을 전제하며, 따라서 철학적 토대와 연대의식, 그것을 구현하는 공동체적 투쟁이 요구된다고 한다. 이경원, 위의 논문, 25, 37 쪽
- 3) 내선일체는 1910년대의 寺內正毅 長谷川好道 3·1 운동 이후 부임한 齋藤實 총독 시기의 내선융화를 일보 진전시킨 것으로, 1931년에 조선총독이 된 宇垣一成 육군대장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만주사변 이후 다시 南次郎 총독 때 보다 강력한 내선일체 정책이 추진되었다. 내선일체에 대한 선행 연구들로는 宮田節子(저)/이형량(역), 『조선민중과 황민화 정책』(일조각, 1997); 최유리, 「일제말기 내선일체론과 전시동원체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1995); 홍일표, 「일본의 식민지 동화정책에 관한 연구: 창씨개명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9) 등이 있다. 특히 녹기연맹의 내선일체 논리는 그것이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데, 이에 관한 연구로는 이승엽, 「녹기연맹의 내선일체운동 연구: 조선인 참가자의 활동과 논리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 논문(1999); 박성진, 「일제말기 녹기연맹의 내선일체론」, 『한국근현대사연구』 10(한울, 1999); 정혜경·이승엽, 「일제하 녹기연맹의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10(한울, 1999) 등이 있다. 국가주의 종교단체의 성격을 띠는 국주회(國柱會)로부터 비롯된 녹기연맹은 원래 종교수양, 사회교화를 표방하고 1920년대 중반부터 일본국체의식의 보급을 위해 노력한 재조일본인의 민간단체이지만, 이후 현영섭 등을 비롯한 조선인들이 적극 참여하여 내선일체 논리를 제공하는 단체로 성장한다.

면, 근대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것은 정치적·역사적 의미에서 매우 비중 있고 거의 완결된 모습으로 진행되었으며, 정교한 논리로 가장 광범위한 부정적 의식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내선일체의 완성은 “일본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며, 또한 “동아신질서 건설”의 전제로서 “세계사 건설의 성스런 출발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내선일체는 세계사의 앞길에 중대한 시금석으로 또 신일본 건설과 세계 신질서 건설의 서곡으로 간주되었으며, 내적으로는 침략전쟁에 협력하고 “천황에 충실한 조선인”을 만들기 위한 “황민화정책”의 핵심으로 강조되었다⁴⁾ 세계사적 기획 아래 만들어진 내선일체는 최후의 수단이자 목적으로서의 강제력을 획득하기 위해 이념 내적 논리 기제들을 구성한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내선일체는 이데올로기인 이상 그것은 허위의식일 뿐이다. 허위의식은 그것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그리고 수용자의 처지에서는 수용의 불가피성을 의미하게 된다. 정당성은 권력의 보장을 의미하므로 이데올로기는 현실적인 가치이며, 수용의 불가피성은 각종 구차한 변명의 응축일 것이다. 당연히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이론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표현인 한에서 존재하므로 그것에 대한 의문은 금기시 되었다.⁵⁾ 이러한 금기의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식민주의의 모든 논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내선일체논리를 거부하는 것은 탈식민주의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내선일체 논리는 제국주의 시대에 거역할 수 없어 보이는 힘의 질서를 진보의 이름으로 규정하면서 전개되었다. 단 하나의 길만 강제되는 시대에 힘은 직접 자신의 폭력성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모든 이론적 해석을 만들어낸다. 진보 논리는 타자를 지배하기 위한 정당화 논리이며, 세계사적 사명이란 권력 독점을 연장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예속된 정신은 스스로

4) 津田剛, 「內鮮一體の基本理念」, 綠旗聯盟, 『今日の朝鮮問題講座(1)』(京城: 綠旗聯盟, 1939), 72, 88쪽

5) 이데올로기의 현실적 힘은 바로 권력이 논거의 권위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스탈린(Stalin)의 담화 모두를 보증하는 최고의 권위는 바로 스탈린 자신이었다. 즉 합당한 해석이라 함은 권력에 대한 맹목적이고 유치한 맹신이 이성으로 대치되는 프로이트(Freud)적 의미의 합리화라고 할 수 있다. 르볼, 올리비에(Reboul, Olivier)(저)/홍재성(역), 『언어와 이데올로기』(역사비평사, 1995), 116~117쪽

를 부정하게 하며,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자신으로부터가 아닌 강제된 이념에 종속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모에 의한 것이라고 오인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모든 기획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정치적 식민의 효과적인 장치로 활용되었다. 정치적 탈식민 이후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유효한 사고틀로 행사되고 있다는 점은 이것이 역사적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의 문제임을 확인해준다. 즉 지금도 망령처럼 떠도는 식민주의의 이념적 재생산의 기제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내선일체 논리를 근저에서부터 비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 내선일체 논리의 진보이데올로기

1. 진보이데올로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약육강식의 사회진화론은 진보의 논리와 결합하여 역사 발전의 필연적 법칙으로 간주되었다. 개국 후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는 인류가 반드시 거쳐 가야 할 길을 “야만 반개(半開), 문명” 3단계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시 정황에서 일본의 위치는 반개의 상태일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는 자신을 문명으로 행세할 만한 논리를 찾고자 하였다. 그에 의하면 서구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야만 지역에 대해서는 반개의 상태가 가장 진보한 단계가 된다. 서구 문명에 의해 직접 야만으로 간주되어 노예의 상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불안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문명으로 간주할 타자로서의 미개와 야만을 발견하거나 날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⁶⁾

처음부터 힘의 이데올로기로 출발한 사회진화론은 진보와 역사 발전이라는 논리로 다양한 논리들을 지원한다. 진화의 반대편에 있는 정체론은 필연적으로 타자

6) 아이누인에 대한 폭력적인 동화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미개를 발견해야 하는 절박함에서 정한론으로 대표되는 조선 침략의지와 대만 출병은 구래의 “조공 외교” 논리 대신 제국주의적 “만국공법” 논리로 위장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1876년 2월 26일의 “조일수호조규”에서 조선을 자주국이라 함은 제국주의적 식민지 작업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저)/송태욱(역), 『포스트콜로니얼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의식』(삼인 2002), 33-48 쪽.

를 규정하는데 할애되며, 곧바로 타율성과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조선의 역사는 일본의 봉건제에도 이르지 못한 채 멈추어버렸으며, 조선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는 식의 얘기이다.

돌이켜보면 조선의 인민은 오랫동안 극심한 불행에 빠져 있었다. …이를 우리의 역사에서 예를 들자면 평안조(平安朝)의 하민(下民)의 상태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평안조의 민은 빈고의 생활에 고생하고, 병자를 부양할 수도 없었으며, 죽은 자를 장사지낼 수도 없었다. …강자의 포학을 맞아서도 하등의 저항력이 없었다. …조선도 역시 금일까지는 앞서 말한 상태에 있었다⁷⁾

문명적 시각에서 재단한 조선인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쇠약은 곧바로 야만으로 전락되며, 이러한 극심한 불행은 문명에 의해 구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기획된 야만의 조선상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역사적으로 전개될 정치적 지배에 있음을 보이고 있다. 물론 그것이 폭력의 행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문명화를 위한 소임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반도문화정책의 근본은 일본문화의 반도에의 이식 배양에 있으며, 일본 국민 도덕의 반도에의 침윤 투철(透徹)을 피하여 충군애국의 숭고한 의리 인정의 기미(幾微)에 도달하기까지 조선민중으로 하여금 올바르게 이해 저작(咀嚼)시켜 그 성격을 도야시키고 그 정조를 순화함과 동시에 과학, 언어, 문예, 취미, 오락 기타 생활양식의 전반에 걸쳐 일본문화의 수미(秀美)한 것들을 반도에 육생 번무(繁茂)시키지 않으면 안된다.⁸⁾

생활의 번영과 숭고한 정신의 함양이라는 목표는 말 그대로 문명화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숭고함이 지배자의 권력의지에 대한 예속을 의미하는 한, 번영이 지배자의 양식을 모방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한, 문명화는 식민화 이외의 다른 아닐 것이다.

7) 喜田貞吉, 「併合後の教育觀」, 『日本及日本人』, 541(1910. 9. 15).

8) 朝鮮總督府, 「極秘內鮮一體/理念及其/具現方策要綱」(1941, 大野 1260), 『大野綠一郎關係文書』, 東京, 日本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7쪽

내선일체는 단지 형식상에 그치지 않고 내선인이 일체가 되어 조선 반도에 빛나는 문명을 개발하고 조선과 일본이 공동으로 진보 발전을 이루는데서 그친다고 생각한다. …내선인이 혼연일체가 되는 수단 방법은 언어의 통일, 농상업의 공동 경영, 지식의 상호 교환 등이 있으며, 이는 날로 진보하는 중이다. …본이 조선보다 선진함이 50년에 개국 진취의 방향을 취하여 세계적 문명을 자기의 자각에 의하여 개발 운용함은 조선을 대륙의 근거(根基)로 하고, 중국, 만주 및 시베리아 방면을 향하여 세계적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상천(上天)의 섭리라고 할만하다.9)

공동의 발전과 통일, 교환이라는 수사 속에 언제나 문명화의 사명이 개입하고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앞서 문명화한 일본으로부터의 그리고 일본으로의 방향만이 요구될 뿐이다. 형식에 그치지 않는 질적인 동화를 이루는 목표는 완전한 지배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흔히 이데올로기는 보편적으로 제시되지만 실제로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때는 반드시 누가 그것을 말하는지 즉 진짜 발화자를 분명히 한다. 즉 정당함은 정당한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에게 의해서만 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발화의 독점이라는 현실은 이데올로기의 필연적 모순이다. 이데올로기의 보편성은 동시에 타자의 배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내선일체 이데올로기는 사회진화론의 연속선상에 위치하며 따라서 본래적인 의미의 폭력을 은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10)

2. 세계사의 사명

진보의 교의는 나아가 세계사의 사명이라는 세계 모두가 따라가야 할 이상으로

9) 渡瀨常吉, 「내선일체의 이상(1~2)」, 《매일신보》 1917년 6월 5~6일자. 내선일체를 세계적 사명으로 고취하는 이러한 논조는, 내선일체의 오래된 연원으로서의 일선동조론이 문명화의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상륙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정상우, 「1910년대 일제의 지배논리와 조선 지식인층의 인식: 일선동조론과 문명화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0)을 참조할 것.

10) 이런 시각에서 사회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유교적 도덕을 보편주의 가치로 간주하며, 반문명주의로서의 아시아주의를 제창한 안중근의 견해는 비록 그것이 무력한 시대 인식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힘에 근거한 문명화가 불러올 지배에 대한 거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건차, 앞의 책, 260~264쪽.

연속된다. 필연적으로 사회진화론은 강자의 논리로 해석되며 현실의 힘은 서양근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지배와 종속 관계의 현실성은 문명의 세계사적 구조에 의해 필연적인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¹¹⁾ 제국주의적 질서는 제국과 식민의 이분법적 구도로 설정되었으며, 비서양 비근대는 서양근대에 의해 비주체적 실체로 규정되었다.

즉 문명화의 사명에는 타자를 배제하는 억압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데, 큰 범위에서 말하자면, 인종주의적 의식과 다양한 정신문명에 대한 획일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명화는 아시아에서 지리적 분화를 거쳐 아시아주의를 낳게 되고, 아시아주의는 일본과 비일본 아시아국가의 구별 짓기로 구성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시아주의는 인종주의적 연대의 외양을 가짐으로써 인종주의적 틀 내에서 아시아국가에 대한 지배 효과를 일본이 독점한다는 것이다.¹²⁾ 여기에 일본적 아시아주의의 역사 구상이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아시아주의적 구상은 문명의 보편성을 실현하는 논리에 의해 지지된다.

금일의 세계를 나는 세계적 자각의 시대로 생각한다. 각 국가는 각자 세계사적 사명을 자각함으로써, 하나의 세계사적 세계 즉, 세계적 세계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금일의 역사적 과제다...종래 동아 민족은 유럽 민족의 제국주의 때문에 압박받고 식민지시되어 각자의 세계사적 사명을 박탈당

-
- 11) 물론 진보·문명개화의 보편성을 거부한다고 해서 힘의 논리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태평양전쟁 당시 야스다 요주로(保田與重郎)는, 「대동아전쟁과 일본문학」에서, “군주의 곁에서 죽으려다”는 옛 시가를 인용하며, “죽음 외에는 다른 무엇도 생각하지 않는다” “싸워 죽는 일의 의의를 세계사 운운하는 문명개화의식과는 다른 “우리의 전쟁론”으로 강조하였다 히로마쓰 와타루 廣松涉(지)김향(역), 『근대초극론』(민음사, 2003), 169~170 쪽 또한 보편의 기반을 요구하는 비교민속학 대신 독립적 민속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야나기타 쿠니오(柳田國男)의 일국민속학에서도, 수백 대를 거쳐 “황실을 받들아” 왔다는 자각을 통해 “충군에국심의 근저를 형성하려는” “멸사순국”의 이데올로기를 발견할 수 있다 임경택 「야나기타 쿠니오 柳田國男의 일국민속학과 식민주의에 관한 일고찰: 국가·민족의식과 아시아 인식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7권 제호(2004), 67~96 쪽
- 12) 아시아의 대동단결이라는 구호를 통해 유색인종과 백인종의 대항설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이 오로지 아시아시장에 대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독점을 위한 것임은, 1920년대 중반 당시에도 이미 격렬하게 비판되었다. 김경일, 「아시아연대의 역사적 교훈: 아시아민족회의와 아시아연맹의 사례」, 『정신문화연구』, 제27권 제3호(2004), 232 쪽

했다. 오늘이야말로 동양의 제민족은 동양 민족의 세계사적 사명을 자각하고, 각자 자기를 초월하여 하나의 특수한 세계를 구성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사적 사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동양 공영권 구성의 원리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동양 민족은 함께 동양 문화의 이념을 내걸고 세계사적으로 분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의 특수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자면 그 중심이 되고, 그 과제를 지고 일어설 것이 있어야만 한다. 동양에 있어서 금일 그것은 우리 일본밖에 없다.¹³⁾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직후 그것을 정당화하는 논의가 “근대의 초극”이라는 주제로 일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세계의 정치적 블록화라는 당시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근대를 끝까지 연구하고 뚫고 나서 서구에 의한 문명개화의 원리를 부정하는 자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그 초극의 내용이란 것이, 결국 국가의 통제와 개인의 자발성을 직접 결합하는 일본의 이념이 천황에 의해 체현되는 것으로 주장될 때, 그 의미는 근대체제 내의 이데올로기적 재편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¹⁴⁾ 즉, 서구 근대에 의한 역사적 위험성과 한계를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논리라는 것이다. 단순히 지배하는 것이 아닌, 역사의 필연적 운명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세계사적 사명”은 인종주의적 연대를 통해 일본 지배를 정당화한다. 이러한 정당화 논리가 조선의 식민주의 의식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은 논리를 제공하는 현실적 힘에 대한 굴복 때문임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 세기의 역사적 과제가 무엇이겠느냐 하건대 우리는 아세아의 해방이 되리라고 하고 싶다. 아세아는...명실히 완전한 자주독립국은 일본 하나 밖에 없으며 그 나머지는 3백년 이래로 차차 구미의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를 이루어서

13)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 「세계 신질서의 원리」(1943), 허우성 『근대일본의 두 얼굴 니시다철학』(문학과지성사, 2000), 447~448 쪽 교토 학과의 창시자인 니시다의 철학은 한 순간의 생명사건에 이데아를 부여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러나 그의 창조성 탐구가 내적 인간에서 역사적 인간으로 전환될 때, 즉 “자각의 논리”를 “역사적 세계의 자각”으로 인정하고, 그 “세계의 시작과 끝”으로 “황실”을 지지할 때 그는 하나의 이데올로그가 된다. 허우성 위의 책 349~350, 429~431, 526~527 쪽 그의 교토학파가 세계대전을 합리화하는 세계사의 철학을 주장한 것 또한 니시다 철학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히로마쓰 와타루, 앞의 책, 191~199쪽.

14)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근대의 초극에 대하여」, 히로마쓰 와타루, 앞의 책 244~247 쪽

그악한 질곡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형편이다.…인류의 기술은 벌써 세계의 일체를 실현하였거늘 역사의 궤도만은 의연히 원심적 배주를 고집하고 있음은 인류의 정신이 저열함을 보이는 사실이다. 더구나 동양과 서양이 일방은 피압제자, 피착취자라는 비윤리적 대립상을 보이고 있음은 인류의 양심이 오히려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합리적 장애 내재적 모순을 제거한 뒤가 아니면 세계사의 출현은 물론 기대할 수 없다. 이럼으로 아세아의 해방은 다만 아세아적 입장 뿐 아니라 진실로 인류적, 세계적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일임을 깨달을 것이다.…동아전은 결코 일본만의 전쟁이 아니며, 또다른 어느 일국민, 일민족 대 타국 민족과의 투쟁도 아니라 진실로 일본 및 일본 정신을 발단자, 또 중추세력, 또 지도원리로 하는 전동아의 해방운동이요, 이 동아해방운동은 그대로 곧 세계개조의 중대한 사안인 동시에 인류역사의 세계화를 현전케 하는 기회이다.…대동아전은 진리와 함께 진행하여 여기 승리가 확보된다.¹⁵⁾

당초 힘에 근거한 문명화의 논리가 전쟁을 통한 해방논리로 연결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전쟁의 상황에서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 전쟁을 독려하는 일은 문명화의 끝이야말로 “인류의 저열한 정신”과 “어리석은 인류의 양심”을 증명해 보이는 일에 다름 아니다. 누가 압제하는 자이고 누가 압제당하는 자인가에 대한 자각이 문명화의 이름으로 삭제될 때 내재적 모순을 해결할 수 없는 불합리의 세계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명화의 이름으로 구성된 내선일체 논리는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III. 내선일체 논리의 노예의식

홉스(Hobbes)와 로크(Locke)에 의하면 역사가 시작되기 전 최초의 인간은 가장 원초적인 욕망, 즉 생명 보존을 위해 타인과 타협한다. 그러나 헤겔(Hegel)에 의하

15) 최남선, 「아세아의 해방」(1944. 1. 1), 정운현(편), 『학병권유 친일문장선집』(도서출판 없어지지 않는 이야기, 1997), 80-82 쪽

면 이러한 타협은 노예적 정신, 즉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그렇다면 주인의식이라 함은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존엄성의 자각이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 제기되거나 심지어는 강요될 때라고 할 수 있다. 허위로 합치된 내선 일체의 기대 속에 조선인의 존엄함은 오히려 철저히 노예적으로 될 때, 가능한 것으로 주장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 통치에 관해서는 대체로 전임자의 방침을 계승하여 참작할 예정이지만, 그 중에는 다소의 개혁을 요한다고 생각되는 점도 있다.···그 하나는 내지인과 조선인과 융합일치 소위 내선융화에 관하여 더욱 진척시키고자 하며,···그 두 번째는 조선인에게 적당히 빵을 주는 것이다.···금일 생활고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고 제거하는데 크게 주의하겠다. 즉 정신생활과 물질생활 양 면에서 그들에게 안정을 주는 것에 가장 우선을 두어 진행하겠다.¹⁷⁾

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이라는 민생 일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체의 의지는 그것이 식민 통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인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인정 욕구는 처음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안정은 주어지는 것이므로, 조선인의 삶은 일체의 배려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여 자신의 존엄함을 증명하려는 노력에서 획득되어질 행복은 노예에게 필요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조선인의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일본인이 되는 것에 의해, 또 장래에 공존 공영하는 것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지금 내가 내 민 손에 악수를 구해 오고, 확실히 상호간의 따뜻함이 느껴지게 될 것이다.¹⁸⁾

장래의 공존공영은 일체가 먼저 내민 손에 의해 진정한 일본인이 됨으로써만

16) 후쿠야마, 프랜시스(Fukuyama, Francis)(저)/이상훈(역), 『역사의 종말』(한미음사, 1999), 237~240쪽.

17) 宇垣一成, 『宇垣一成日記』(2)(1931年 7月 2日), 東京 みすず書房 1968, 801~802 쪽

18) 『宇垣一成日記』2(1934年 10月 22日), 972쪽.

가능하므로, 철저히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매시간 자신의 존엄함을 드러내려고 꿈틀대는 욕구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무력하게 억압된다. 야심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 하지만, 이미 그러한 야심의 장(場)이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다른 모두에게 주어진 균질한 예측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따라서 개성이 없고 보다 우월한 정신의 표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노예들은 오직 주인을 흉내 냄으로써 자신의 노예성을 은폐하려는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고귀하게 여길만한 가치들은 이제 주인의 배려와 명령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것처럼 믿어지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노예들에게 고귀한 정신을 빼앗는 지배자들 또한 자신의 우월한 정신성을 보장받지는 못한다. 그들의 위대함이란 고작 노예를 맹목적인 종속의 상태에 묶어두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획에 의해 내선일체는 노예의 길로 치달린다. 결국 일본인이 내 민 손에는 허망한 죽음의 그림자만 드리울 뿐이다.

지원한 계급들은 아직 몸에 군복과 군화를 갖추지 않았으며 이미 숭고한 명령에서만 살 수 있고 죽음에 들 수 있는 ‘새인간’이 된 것이다...만일 계급들이 한 번 이 길에 들지 않을 때를 생각해보자. 우리 반도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실로 이번 계급들의 장도는 명일의 조선에 새로운 비약과 발전을 약속하여 주는 것이다...동서를 막론하고 나라를 위해서, 또는 내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위인열사들은 자고로 부모처자와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것이다...나는 믿는다. 계급들은 오직 순층에 살고 죽을 것을.¹⁹⁾

이제야말로 젊은 학도들이 망설일 때는 아니다. 길은 오직 둘 뿐이다. 그 하나는 제일선의 결전장으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탄환과 비행기며 기타 병기

19) 윤치호, 「장하다, 그대들 용단. 오직 순층봉공에 몸을 바치라」, 《매일신보》(1943. 11. 21), 정운현(편), 앞의 책, 272~273 쪽 잘 알려져 있듯이 윤치호는 문명개화를 서구화로 연결시켜 민족의 생존을 꾀하였다. 그는 서구문명을 보편의 관점으로 받아들여, “야만인을 자연의 노예,” “문명인을 자연의 주인”(『일기』 1898년 12월 29일자)으로 이해하고, 문명화의 원동력으로 기독교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개화주체를 애초부터 추상적이고 비정치적인 구도에서 이해한 이상, 그의 정치적 변절은 예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홍원표, 「독립협회의 국가건설사상 서재필과 윤치호」, 『국제정치논총』, 제43권 4호(2003), 101~102 쪽

와 군수품을 만드는 곳으로 징용되어 국가에 봉공하느냐, 어느 편이고 결정하여 용감히 나아갈 길을 택하여야 할 지금이다...이렇게 국가에 몸을 바칠 길이 빠른 이상 남자답게 제일선으로 나아가는 특별지원병의 길을 취하여야 할 것 아닌가.²⁰⁾

주인의식은 분명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의지에서 살아난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노예 상태를 벗어나려는 의지는 먼저 존엄함을 포출하려는 “숭고”함에서 비롯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의 숭고함이 독자적인 패기에서 비롯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존엄함을 무력화한 주인을 향해 목숨을 건 투쟁을 포기하고, 주인을 위해 죽기로 작정한 “새 인간”은 노예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다. 주인의 명령이 노예의 정신적 예속성을 요구할 뿐이므로 그것은 결코 숭고하지 않다. “남자답게” 목숨을 버리는 결단은 자신을 예속하는 주인의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국가를 위해서 숙고되어야 했을 것이다.

학도들이 성전(聖戰)에 주저하는 이유는 첫째, 자신의 생에 대한 집착이며 둘째, 가정 사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목숨은 육체적 일생과 마치지만, 역사적 대의를 위한 것일 때는 대의와 함께 영생한다. 또한 가정에 얽매인 안위를 버리고 황국신민으로 도약하는 시대적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²¹⁾

자신의 생에 대한 집착을 초월하고 육체적 안위를 벗어나는 결단은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역사적 대의라거나 성전의 시대적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는, 밖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위해서 또 오직 두려움에 떨며 육체적 죽음을 감수하도록 내몰리는 것은 전혀 숭고하지 않은 개죽음일 뿐이다. 또한 비루해 보이는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 주인과의 동화를 구결하는 서글픈 절규²²⁾는 정신과 육체 모두를 경멸하게 할 뿐이다. 특히 죽음으로

20) 윤치호, 「내 아들 전도(前途)를 축복: 이제 당장 지원토록 내지(內地) 재유학도에 전보를 치자, 《매일신보》(1943. 11. 6), 정운현(편), 앞의 책, 249쪽.

21) 현상윤, 「土는 국지원기(國之元氣)-멸사(滅私), 구왈(久遠)의 생을 찾자(1943, 11, 9), 정운현(편), 앞의 책, 26-29쪽.

내모는 주장 또한 노예적 정신의 속성일 뿐이다.

니체(Nietzsche)에 의하면 주인은 다만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자일뿐이지 타인에게 육체적 고통을 강요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는 오직 자력 없이 주인이 되려는 자로서 오직 야비함과 포악함만을 드러낼 뿐이다. 어쨌든 오만하고 잔인한 주인의 의식을 추종하는 식민지 지식인들에게서, “내선일체란 조선인의 황민화를 말하는 것이며,” “내선일체란…위대한 천황폐하께서 베푸신 은혜이다”²³⁾라는 노예적 비굴함의 언사를 듣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내선일체에서 “영혼을 대신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²⁴⁾을 발견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IV. 내선일체 논리의 오인(誤認)체계

부르디외(Bourdieu)에 의하면 인간은 사회에서 규율에 적응하기 위해 행동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 구조는 기계적인 반사도 아니고 철저한 합리적 계산에 의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무의식적 반응이거나 현실 속에서 가진 미래에의 기대에 의해 습득된다고 한다.²⁵⁾ 규율 생산자는 그 규율이 권력을 창출

-
- 22) 1939년 당시 『東洋之光』사에서 주최한 ‘지상결전 학생운동대회’에서 경성제국대의 예과 3년생 미우라(三浦俊忠: 창씨명, 본명 미상)는, “일본에서 조국을 발견하지 못한 자는” “깨끗이 자갈 하라고 열변을 토한다. 그러나 자신의 곁으로 다가오는 것을 진정으로 꺼리는 일체에 의해 오직 “죽음”만이 “완전한 일본인으로 살 갈”이라고, “차별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내선일체에 모든 것을 건 조선의 지식인이 “온 몸이 찢기는 고통”을 맛보게 되는 비참은 예고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홍일표, 앞의 논문 101~105 쪽
- 23) 香山光郎(이광수), 『內鮮一體隨想錄』(1941), 中央協和會, 윤건차, 앞의 책, 195쪽. 또한 “일본인들의 웅대한 야망”에 “찬사”를 보내며, “조선인들에 대해 실망감을 금치 못한 윤치호가 “일본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희망”(1940. 10. 26)으로써 “조선을 철저히 일본제국의 국가체제에 동화”(1943. 3. 1)할 것과 “조선의 해군 병사들이 일본 해군의 명예에 누가 되자” 않도록 마음 졸일 때 식민주의 노예의식의 전형을 발견할 수 있다. 김상태(편역), 『윤치호일기 1916~1943: 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시기』(역사비평사, 2003), 475, 497쪽.
- 24) 근대 이후 “구원의 대상”이 된 육체가 오히려 사물화 됨으로써 인간의 숭고한 정신적 의미를 상실하게 한 현대사회의 본질적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보드리야르, 장(Baudrillard, Jean)(저)/이상철(역),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문예출판사 1996), 189~204 쪽
- 25) 홍성민, 「부르디외(Bourdieu)와 푸코(Foucault)의 권력개념 비교 새로운 주체화의 전략」, 현택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특수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획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식민주의적 기획에서 이러한 의도는 철저하게 관철된다.

“오늘날 세계대전은 결코 근대 내부의 전쟁이 아니라, 근대 세계의 차원을 넘어서 근대와는 다른 시대를 꿈꾸는 전쟁”이며, “대동아공영권은 자주적인 계약에 의한 결합이 아니며 권력의 강요에 의한 결합도 아니다. 오히려 지리적, 운명적 공동 연대를 기초로 한, 새로운 도덕적 원리로 묶이는 특수한 세계이다.” 또한, “비유럽 지역으로의 유럽의 끊임없는 확장…유럽 세계사 외에는 세계사가 없다는 관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현대의 세계사적 사실이다.”²⁶⁾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준거로서의 세계의 구성이 미래적 기획으로 전제되고, 이러한 전제가 도덕적 원리로 구성된 보편적이며 또한 새로움을 창출하는 패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언설은 무의식적으로 동의하도록 만드는 오인체계를 갖도록 한다. 즉 자기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한 내면적 요구로부터 도출된 가장 인간적인 기획으로 받아들여지게끔 한다는 것이다.

천황의 세계통치는 일본국가의 권력적 강제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일본인의 도의적 행동에 감격한 이민족들의 절실한 요청에 따라 실현되어야만 하는 것이다.²⁷⁾

민족협화는 일본인의 힘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정성스런 마음으로 대하면서 상호 성의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다.²⁸⁾

강제가 아니라 절실한 요청에 따른다는 일제의 지배논리는 대부분의 권력효과

(외), 『문화와 권력: 부르디외 사회학의 이해』(나남출판 1998), 211~212 쪽

26) 고오야마 이와오(高山岩男), 『세계사의 철학』(1942, 9), 히로마쓰 와타루, 앞의 책, 52, 67, 68 쪽

27) 伊東六十次郎, 「東亞聯盟の民族協和」, 『東亞聯盟』(1940年 10月), 윤건차, 앞의 책, 202 쪽.

28) 石原莞爾, 「滿洲建國前夜の心境」(1945年 2月), 『昭和思想集2』, 近代日本思想大系 36, 윤건차, 위의 책, 201~202 쪽.

들이 그러한 것처럼 사회규율이 각자의 창조적 개입으로부터 행사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이러한 인식의 수용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서 반복된 인정과 행동습관과 결합하게 된다. 이 때 지배의 전략은 구체적인 상징적 구조화를 주입하게 되는데, 그것은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예측의 경험과 예측의 의식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²⁹⁾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동아신질서를 표방하며 동시에 “조선교육령”을 조선에 공포한다. 교육령에 수반한 학제 개혁은 “대륙전진을 위한 문화기지로서의 반도의 사명”을 식민지조선인에게 주입하기 위한 통일된 교육 방침, 황국신민의 교육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교육 목표 역시 “황국신민화=국체”를 내면화한 식민지조선민중의 양성에 맞추어지고 있었다.³⁰⁾ 계속해서 1940년 전시체제가 강화될 즈음, 일제는 국민총력운동을 전개해 종래의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이 내선일체의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것과 비교하여, 전쟁수행을 위한 사회체제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정신의 통일, 국민 총훈련, 자급자족을 위한 생산력 확충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사회적 규율에 알맞은 행동체계를 창출하도록 제시되었다.

그 세 가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번 조선에 만들어진 국민총력운동이다. 이 국민총력운동에 의해 총량한 황국신민의 정신으로 통일하는 것, 모든 기회에 국민이 이 중대한 임무를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의 총훈련을 이루는 것, 각기 그 직장마다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생산력을 확충하고 자력에 의해 자급자족을 만드는 것, 이것이 국민총력운동의 목표이다. 이것을 단적으로 말하면, 총력운동이라는 것은 각 개인이 국가지상주의 아래 자신의 이익을 제2차 이하에 두고 멸사봉공하는 것이다.³¹⁾

29) 피지배자의 의식적인 동의보다는 육체에 지속적으로 기록되는 믿음과 성향이 지배자에 대한 복종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든다. 즉, 육체의 훈련으로부터 비롯되는 습관과 성향체계를 이해하는 일은 “의식적인 저항”이나 “자각의 자동 효과”라는 논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다 부르디외 피에르(Bourdieu, Pierre)(저)/김웅관(역), 『파스칼적 명상』(동문선 2001), 242~248 쪽 따라서 대상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파스칼적 태도에 대한 부르디외의 공감은 이런 면에서 수긍할 만하다. 부르디외, 위의 책, 19~21쪽.

30) 八木信雄, 「學制改革と義務教育の問題」, 綠旗聯盟, 『今日の朝鮮問題講座(3)』(京城 綠旗聯盟, 1939), 55쪽.

황국신민의 정신으로 통일되고, 멸사봉공하는 인간형은 월별로 규정된 활동을 하고 상회(常會) 등의 집회를 통해 그것을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서 특히 피지배자에게 부과되는 질서체계는 흔적 지우기로서의 정체성 말살을 기도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중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국민”의 창씨개명과 국어(일본어) 상용 내선결혼 등의 정책은 조선인 존재 자체를 지우는 정책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차별로부터의 탈출 기회로 간주하는 헛된 꿈은 이러한 지배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불행한 사고의 일단일 뿐이다.

“만약 끝내 조선인이 독특한 생활감정이나 언어를 고수한다면, 조선의 풍속습관을 견지한다면, 배타적 정치적 감정으로까지 발전할 것이라 단언하며, 우리의 자손이 불행한 날을 맞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현영섭이, “반도의 대다수 청년이 천황과 나라를 위해 기쁘게 죽는 날”을 “꿈꾸는” “이상한 놈” 취급을 당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을 것이다.³²⁾

일상생활에서 세계사의 사명을 자각하고 그러한 사명이 각자의 내면적 요구로부터 나온 도덕적이라는 각인은, 규율 있는 행동이 곧 “과격적인 영광”의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기대를 갖도록 유도되었다. 특히 “일본신민으로서 가장 숭고한 의무

31) 朝鮮總督府, 『國民總力京畿道聯盟役員總會=於朝鮮聯盟總裁訓示』, 『半島ノ國民總力運動』(京城 朝鮮總督府, 1941), 83쪽.

32) 현영섭, 『新生朝鮮の出發』(東京: 大阪屋號書店, 1939), 13쪽, 현영섭 「秋の夢」, 『綠旗』, 3-8(綠旗聯盟, 1938), 49쪽. 현영섭이 이상한 놈이라고 취급당했다는 사실은 그가 “급진적 내선일체론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한다. 세계의 블록화와 중일전쟁 이후 일본이 보여준 강력한 세력 앞에 조선의 많은 민족운동들은 절망 속에 대량 전향하게 된다. 이 때 1920년대의 민족주의 우파의 자치론 계열과 대다수 전향자는 현 체제를 인정하는 “조선자치론”으로 기울었지만, 녹기연맹의 현영섭, 이영근, 배상하 등은 완전한 동화를 주장하였다. 후자는 차별받는 조선민족에서 “민족”의 굴레를 버리고 근대적(일본적) 주체로서의 “개연”을 찾음으로써 차별에서 탈출하고자 하였다. 조선인으로서의 존재를 부정한 현영섭은 자신의 입장을 “동화일체론”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자치론,” “협화적 내선일체론,” “내선연합론” 등을 “평행제후론”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중일전쟁의 조기평화를 위해 국론 수준으로까지 주장된 “동아연맹론”에 힘을 얻은 평행제후론에 대해 조선은 이미 일본의 일부가 되어 일체의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조선을 피지도자적 독립국의 지위로 되돌릴 수 없다고 극력 반대하였다. 조선인 내선일체론자들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승엽 앞의 논문, 42-67쪽 참조 또한 징병제와 참정권을 둘러싸고 제기된 조선인의 의무와 권리의 현실적 문제를 놓고 내선일체에 대해 모순적 속내를 보이는 일본인 내선일체론자들 사이의 이견에 대해서는, 최유리, 앞의 논문, 130~183쪽을 참조할 것

임과 동시에 특권”이라는 “병역의 의무”를 “내선일체를 투철하게” 실행해온 “조선인의 열렬한 열망을 수용하여”³³⁾ 부여한다는 징병제의 실시는 내선일체의 약속이 현실화하는 순간으로 고무되었다.

그것은 백만 가지의 아름다운 형용사보다도 단 한가지의 실천, 즉 몸소 부딪쳐 현실을 해독하고 현실 위에 현실을 쌓아나가는 역사적 창조성만이 그 요구에 응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다. 그것은 맹목적인 행동주의도 아니요, 하물며 까닭 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그것은 국민으로서 응당히 가져야 할 3대 의무의 하나인 징병제 실시에 대한 그것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어...우리 학도에 대한 파격의 영광이 내린 것이 아닌가...개인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다시 한 걸음 나아가 일본 아니 세계인류를 위해서 다시없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 나도 반도 학도들의 나갈 길 그 앞길에 대한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고 따라서 한 사람 빠짐없이 대동아 신질서 건설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세계의 유신을 위하여 쫓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몇 번이고 강조하고 싶다.³⁴⁾

그러나 “내선일체의 진수를 구현시키기 위한 “징병제”³⁵⁾의 실시를, “반도 동포 모두 진정한 황국신민으로서 국방의 중임을 담당하여 역사 있고 명예로운 황군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³⁶⁾의 결과로 선언하는 언설들은 모든 이데올로기가 그러하듯이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측의 오인을 유발하기 위한 전략적 논리에 불과하다. 즉, “진실을 알지 못하면서도 진실을 실천하는”³⁷⁾ 이러한 오인 속에, “조선은 식민지가 아니다”³⁸⁾므로, “같은 신궁 참배를 하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사실을 생각하여,” “반도인의 얼굴”마저 일본인처럼 완전히 변화

33) 朝鮮總督府, 『朝鮮統理と皇民化の進展』(1943), 최유리, 위의 논문, 145쪽

34) 윤치호, 「총출진하라」, 《매일신보》(1943. 11. 19), 정운현(편), 앞의 책, 210쪽.

35) 「朝鮮同胞-對於徵兵制施行準備決定-件措置狀況並其反響」, 최유리, 앞의 논문, 151쪽.

36) 八木信雄, 「徵兵制度施行の意義」, 『朝鮮』, 326(1942年 10月), 40쪽. 조선인 참정권의 문제 또한 내선일체에 의한 진정한 황국신민의 긍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 수행을 위한 선전 논리로써 활용되었다. 최유리, 위의 논문, 181~183쪽

37) 부르디외, 피에르(저) 최종철 역, 『자본주의의 아비투스 알제리의 모순』(동문선 1995), 128쪽

38) 현영섭, 『新生朝鮮의出發』(1939), 1쪽.

여, “호적”만 바꾸게 된다면 진정한 “내선일체 39)를 완성할 수 있다고 염원하는 가련한 인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V. 맺음말

탈식민의 설립자로 일컬어지는,40) 파농(Fanon, Frantz)의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의 1961년판 서문에서 사르트르(Sartre)는 “정당한 인간적 지위를 부여받은 유럽의 인간들이,”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솔직히 “식민주의의 공범자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주의가 “약탈에 대한 완벽한 정당화”로서의 “위선의 이데올로기”이며, 이러한 유럽의 탈식민적 자각은 “분노의 표출”도 아니고 “야만적 본능의 부활”이나 “원한의 결과”도 아닌 “분출되는 폭력”에 의해 자극되고 있다고 말한다.41)

파농은 원주민 지식인들이 자신의 공격성을 식민지세계에 동화되고자 하는 은근한 욕망으로 은폐하고, 그리고 그 공격성을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혼자만 자유로운 노예가 되는 대신에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어떤 죄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억압 속에서도 길들여지지 않고, 열등한 인간으로 취급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열등함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최후의 결전을 위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자유로운 민중의 힘을 긍정하고 있다.42)

39) 이광수, 「얼굴이 변한다」, 김원모·이경훈(편역), 『동포에 고향』(철학과현실사, 1997), 59 쪽

40) 차일즈, 피터(Childs, Peter)·윌리엄스, 패트릭(Williams, Patrick)(저)/김문환(역), 『탈식민주의 이론』(문예출판사, 2004), 111 쪽

41) 파농, 프란츠(Fanon, Frantz, 1925-1961)(저)/남경태(역),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그린비, 2004), 40-51 쪽

42) 위의 책, 73-81쪽. 또한 저항의 선택에는 보다 근본적인 목적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파농이, “우리는 우리로부터 식민주의를 제거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지,” “마지막 백인경찰이 떠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한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즉 생존의 문제를 초월하여 새로운 영혼의 창조를 위한 목적이 근본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사이드, B. 에드워드(Said, B. Edward)(저)/전신욱(역), 『권력과 지식인』(창, 1996), 83-84쪽. 그런데, 이경덕은 파농이 노예가 주인이 되는 순간을 강조하지만 1968년 혁명이 좌절된 이후 오히려 주인과 노예 양자를 지양하는, 즉 주인과 노예를 발생시킨 체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경덕, 「탈식민주의와 마르크시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니체에 의하면, 인간은 욕망과 합리적 이성의 결과에만 집착해서는 자신의 고유한 존엄성을 만족시킬 수 없다. 반면 욕망이 합리적 이성의 틀에 가두어질 수 없으므로 고삐 풀린 욕망의 긍정이 포스트근대의 인간형을 만들 것이라는 들뢰즈(Deleuze)의 노마드(nomad)적 사유는, 그것이 육체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근대적 기획과 얼마나 분리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남는다.⁴³⁾ 따라서 탈식민주의적 관심은 욕망과 이성에 의해 왜곡되지 않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탈식민주의는 근대를 회복하자는 것은 아니다. 근대적 기획의 산물인 식민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이 식민지배자의 그것을 그대로 추구하고 달성하여 역전시키는데 있다고 상정한다면, 자신의 존엄성이 단지 다른 예측성을 만듦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식민주의의 다른 이름인 제국의 역설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식민지배자가 되기 위해 근대의 이름으로 실력을 양성하는 것은, 그대로 식민지배자에게 예측됨을 약속하는 것이고, 자신의 존엄함의 모든 것이 자신보다 나약한 모든 것을 지배함으로써 성취될 것이라는 비참의 실현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⁴⁴⁾

이런 의미에서 탈식민주의의 준거점으로 간주되는 『오리엔탈리즘』에서, 사이드(Said)는 서양의 동양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비판하기 보다는 서양의 정체성이 동양을 타자로 규정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지식체계임을 보여줌으로써, 식민주의 지식체계 자체를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할 수 있다.⁴⁵⁾ 즉 탈식민주의는 근대세계의 질서 내에서 행해지는 정치적·사회적 권위를 위한 경쟁에서, 불평등하고 불균등한 문화 표상의 힘이 말려들어가고 있음을 비평하는 작업⁴⁶⁾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고부웅(외), 앞의 책 183~185 쪽 그러나 자신의 자각에서부터 비롯되는 변화를 요구하는 파농에게서 그러한 지양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 43) 전경갑, 『욕망의 통제와 탈주: 스피노자에서 들뢰즈까지』(한길사 1999), 92~93, 251~252 쪽
- 44) 마르크스(Marx)가 헤겔의 논리학을 단지 주어와 술어를 뒤바꾸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또한 니체가 플라톤(Plato)의 참된 세계와 감성의 세계를 “전복 하기 위해 단순히 상위·하위의 위치 짓기의 구조형태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은 것은, “아직 생각되고 있지 않은 것”을 읽어내려는 하이데거적 의미에서 진정한 해체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자리 바꾸기가 아니라 그것의 기원을 찾아내는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가라타니 고겐 栖谷行(天) 재 김경원(역),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이산 1999), 115~119 쪽
- 45) 오인영,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의 이해와 수용」, 『동양학』, 32집(2002), 72~73 쪽

내선일체를 작동시킨 논리적 기제는 현재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친일과 청산을 둘러싸고 진행된 논란에서도 보았듯이, 식민주의 문제는 여전히 진보와 물질적으로 증명되는 정신적 고상함을 위해 우회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치부되곤 한다.⁴⁷⁾ 또한 현재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의 양상은 제국주의 시대의 그것과 닮아 있다. 신식민지 시대라고 불려질만한 현재 세계에서 “사나운 야만인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정도로 “고상한 정신”을 가진 제국주의 정부·미국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내부의 자조적인 비난은, 역으로 대량학살을 자행하는 이유를 “가련한 약자의 전략을 사용하는 국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자극당한 결과라며 폭력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⁴⁸⁾ 잔혹한 세계에 살고 있는 너무나 고상한 미국인들의 얘기는 식민주의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익숙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선택의 문제를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으며, 철학적으로 낱아 보이고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존엄함의 문제를 숙고해야 할 것이다. 필연성을 강조하며 자유로운 인간 정신을 억압하려는 문명 진보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서의 합리주의 과학이 근대의 부정적 기획으로서의 식민주의 논리로 전개될 때 인간은 오만과 비굴의 상태로 양분될 뿐이다. 탐욕의 근대에서 자각하여 탈주하는 방법을 찾지 않고 단지 근대의 기획 속에 맴돌 때, 우리는 계속 비참을 함께 하면서 그것을 애써 외면하는 단절적 세계에 살게 될 뿐일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 근대 이후 내선일체를 비롯한 모든 식민주의에 저항해온 뚜렷한 흔적을 발굴하고, 그것의 목표가 얼마나 모든 한계적 상황에서 자신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실현인지를 아울러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저항의 역사와 논리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다루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46) 또한 근대의 합리화 안에 숨어있는 적대적이고 양가적인 계기를 폭로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바바, K. 호미(Bhabha, K. Homi), 「포스트콜로니얼과 포스트모던, 이기슈(편), 『문화연구』(한국문화사, 1998), 415~416 쪽

47) 오인영, 앞의 논문, 69~70쪽.

48) 촘스키, 노암(Chomsky, Noam)(저)/오에리(역), 『507년, 정복은 계속 된다』(이후, 2001), 186~187쪽.

참고문헌

-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저)/김경원(역),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 서울 이산 1999.
- 고모리 요이치(저)/송태욱(역), 『포스트콜로니얼 :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의식』 서울 삼인 2002.
- 宮田節子(저)/이형량(역), 『조선민중과 황민화 정책』. 서울: 일조각, 1997.
- 김경일, 「아시아연대의 역사적 교훈: 아시아민족회의와 아시아연맹의 사례」 『정신문화연구』 제7 권 제3호, 2004.
- 김상태(편역), 『윤치호일기 1916~1943: 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시기』 서울 역사비평사, 2003.
- 르블, 올리비에(저)/홍재성(역), 『언어와 이데올로기』 서울 역사비평사 1995.
- 바바, K. 호미, 「포스트콜로니얼과 포스트모던」. 이기수(편), 『문화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1998.
- 박성진, 「일제말기 녹기연맹의 내선일체론」. 『한국근현대사연구』 10, 서울: 한울, 1999.
- 보드리야르, 장(저)/이상률(역),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서울: 문예출판사, 1996.
- 부르디외, 피에르(저)/김응권(역), 『파스칼적 명상』. 서울: 동문선 2001.
- 부르디외, 피에르(저)/최종철(역), 『자본주의의 아버투스: 알제리의 모순』. 서울: 동문선, 1995.
- 사이드, B. 에드워드(저)/전신욱(역), 『권력과 지식인』. 서울: 창, 1996.
- 오인영,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의 이해와 수용」. 『동양학』 32집, 2002.
- 윤건차(저)/이지원(역), 『한일 근대사상의 교착』. 서울: 문화과학사, 2003.
- 윤치호, 「내 아들 전도(前途)를 축복: 이제 당장 지원토록, 내지재유학도에 전보를 치자」. 《매일신보》 (1943. 11. 6). 정운현(편), 『학병권유 친일문장선집』. 서울: 도서출판 없어지지 않는 이야기, 1997.
- 윤치호, 「장하다, 그대들 용단 : 오직 순충봉공에 몸을 바치라」. 《매일신보》(1943. 11. 21). 정운현(편), 『학병권유 친일문장선집』. 서울: 도서출판 없어지지 않는 이야기, 1997.
- 윤치호, 「총출진하라」. 《매일신보》(1943. 11. 19). 정운현(편), 『학병권유 친일문장선집』. 서울: 도서출판 없어지지 않는 이야기, 1997.
- 이경덕, 「탈식민주의와 마르크시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고부영(외),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3.
- 이경원, 「탈식민주의의 계보와 정체성」. 고부영(외),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3.
- 이광수, 「얼굴이 변한다」. 김원모·이경훈(편역), 『동포에 고향』. 서울: 철학과현실사, 1997.
- 이승엽, 「녹기연맹의 내선일체운동 : 조선인 참가자의 활동과 논리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

- 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임경택, 「아나기타 쿠니오(柳田國男)의 일국민속학과 식민주의에 관한 일고찰: 국가·민족의식과 아시아 인식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7권 제3호, 2004.
- 전경갑, 『육망의 통제와 탈주: 스피노자에서 들뢰즈까지』. 서울: 한길사, 1999.
- 정상우, 「1910년대 일제의 지배논리와 조선 지식인층의 인식 일선동조론과 문명화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 정혜경·이승엽, 「일제하 녹기연맹의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10, 서울 한울 1999.
- 차일즈, 피터·윌리엄스, 패트릭(저)/김문환(역), 『탈식민주의 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2004.
- 츨스키, 노암(저)/오애리(역), 『507년, 정복은 계속 된다』. 서울: 이후, 2001.
- 최남선, 「아세아의 해방(1944, 1, 1). 정운현 편, 『학병권유 친일문장선집』 서울 도서출판 없어지지 않는 이야기, 1997.
- 최유리, 「일제 말기(1938년-45년) 내선일체론과 전시동원체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 파농, 프란츠(저)/남경태(역),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서울: 그린비, 2004.
- 허우성, 『근대일본의 두 얼굴: 니시다철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0.
- 현상윤, 「土는 국지원기(國之元氣)-멸사(滅私), 구원(久遠)의 생을 찾자(1943. 11. 9). 정운현 편, 『학병권유 친일문장선집』. 서울: 도서출판 없어지지 않는 이야기, 1997.
- 현영섭, 「秋의夢」. 『綠旗』 3-8, 綠旗聯盟, 1938.
- 홍성민, 「부르디외와 푸코의 권력개념 비교: 새로운 주체화의 전략」. 현택슈 외, 『문화와 권력: 부르디외의 사회학의 이해』. 서울: 나남출판, 1998.
- 홍원표, 「독립협회의 국가건설사상: 서재필과 윤치호」. 『국제정치논총』 43 권 4 호, 2003.
- 홍일표, 「일본의 식민지 동화정책에 관한 연구: 창씨개명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 후쿠야마, 프렌시스(저)/이상훈(역), 『역사의 종말』. 서울: 한마음사, 1999.
- 히로마쓰 와타루(저)/김향(역), 『근대초국론』. 서울: 민음사, 2003.
- 渡瀬常吉, 「내선일체의 이상(1~2)」. 『매일신보』 1917년 6월 5~6일자.
- 宇垣一成, 『宇垣一成日記』(2)(1931年 7月 2日). 東京: みすず書房, 1968.
- 朝鮮總督府, 「國民總力京畿道聯盟役員總會=於朝鮮聯盟總裁訓示」. 『半島ノ國民總力運動』. 京城: 朝鮮總督府, 1941.
- 朝鮮總督府, 「極秘內鮮一體/理念及其/具現方策要綱(1941)」. 『大野綠一郎關係文書』. 東京: 日本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 津田剛, 「內鮮一體の基本理念」. 綠旗聯盟, 『今日の朝鮮問題講座(1)』. 京城: 綠旗聯盟, 1939.

八木信雄, 「徴兵制度施行の意義」, 『朝鮮』 326, 1942.

八木信雄, 「學制改革と義務教育の問題」, 綠旗聯盟, 『今日の朝鮮問題講座(3)』 京城 綠旗聯盟 1939.

현영섭, 『新生朝鮮の出發』, 東京 大阪屋號書店 1939.

喜田貞吉, 「併合後の教育觀」, 『日本及日本人』 541, 1910.

● 투고일 : 2005. 1. 31.

● 심사완료일 : 2005. 5. 27.

● 주제어(keyword) : 내선일체(Integration of Japan and Chosun), 탈식민주의(Post Colonialism), 진보 이데올로기(Progressive Ideology), 노예의식(Slavishness), 오인 체계(Delusive system).